“시민 안전·소외된 이웃 지키는 버팀목 되겠다”

황서린 목포소방서 소방교 지역에 온기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등 ‘구슬땀’

제64주년 소방의날 맞아 소방청장 표창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이 일상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에서 재난 현장을 누비는 것은 물론, 비번 날에도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보살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소방관이 있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황서린(35·사진) 소방교가 제64주년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2021년 완도소방서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황 소방교는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해 왔다.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원으로 활약하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 분야에 4년 연속 출전, 현장 대응 역량을 갈고닦았다.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자리를 옮긴 뒤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 숨은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적 관리로 예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도서지역 안전 취약계층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눈높이에 맞춘 대피요령을 안내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부착과 노후 LED 전등, 문어발식 콘센트를 교체하며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배·장판 교체, 문턱 제거, 생활 폐기물 처리, 가스 타이머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황서린 소방교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시작한 일”이라며 “제복의 무게를 잊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황 소방교의 표창 수상은 현장에서의 헌신과 이웃을 향한 나눔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제8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자에 마미숙 명창

제8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자에 마미숙(사진) 명창이 선정됐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올해 운영규정에 의거한 엄정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제8회 수상자로 마미숙 명창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창 임방울상은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중 국창 임방울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보급·진흥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마미숙 명창은 1984년 한애순 선생을 따라 판소리에 입문했으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졸업 후 1993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인정 받았고, 2015년 제23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는 1986년 1월부터 40여년간 국창 조상현 선생에게 판소리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등 네 바탕을 사사했고 1989년부터 10여년 동안 광주시립창극단 상임 단원으로 재직, 다수의 주연과 조연으로 참여해 전통국악의 예술혼을 널리 선양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그는 광주예술중·고등학교, 광주예술영재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서 후학양성에 힘썼고, 2014년 문화예술교육사 2급을 취득하며 판소리 교육의 체계를 정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판소리 세계화를 위해 일본 요코하마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 교류음악회, 일본 히로시마 공연, 중국 곤명시 초청공연 등 해외공연으로 우리 소리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고, 각종 수시 공연을 통해 판소리 저변확대는 물론 전통국악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중채 이사장은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판소리의 진흥 발전을 위한 공적에 의거해 마미숙 명창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우리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 계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담양군,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최근 ‘제16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군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힐링도시 담양’을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먹거리, 체험활동 등을 소개했다. 특히 담양의 숨은 명소와 지역 이야기를 사진과 짧은 영상(숏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내고 지역 특색을 살린 홍보물로 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휴식의 매력을 전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매력을 알리고 군민과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힐링도시의 가치를 담은 참신한 홍보를 통해 담양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協 정기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은 2일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기 장성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는 학교 운영위원장 간 교류를 넓히고 교육 현안을 공유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요 교육 현안 사업을 살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장성수상안전체험장으로 이동해 주요 시설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정기회와 현장 방문이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회옥 장성교육장은 “운영위원장들은 장성 교육 공동체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시새마을회 ‘새마을운동 평가·전진대회’ 개최

여수시새마을회는 2일 “최근 망마보조경기장에서 지도자와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새마을가족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환경 보전과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선 우수읍·면·동 및 유공자 표창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등 현안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은 “새마을가족의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비롯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동근 여수시새마을회장은 “여수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마을가족의 자발적인 실천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신규 공직자 소양 교육·워크숍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2일 “최근 3일간 신규 임용 공직자 5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소양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돕고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청렴·공직윤리를 비롯해 공문서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필수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워크숍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현장 탐방이 진행됐다. 특히 정형화된 답사에서 벗어나 신규 공직자들이 젊은 감각으로 지역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자율 기획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치열한 관문을 거쳐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 공직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젊은 열정과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성장해 적극 행정을 함께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나주 왕곡·공산파출소,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나주경찰서는 2일 “최근 왕곡파출소와 공산파출소가 치안 간담회를 열고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양 파출소는 간담회에서 보행자와 사륜바이크(사발이), 농기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 사건·사고 관련 112 신고 접수 시 관할을 불문하고 상호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현장 협력 체계를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 직후 양 파출소는 커브길과 교차로 등 사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남미 왕곡파출소장과 김승용 공산파출소장은 “수확기에는 교차로나 커브길에서의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 파출소가 힘을 모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응해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담양 창평 부동촌 경로당, ‘모범경로당’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2일 “창평면 부동촌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로부터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모범경로당 지정식에는 박효 부동촌 경로당 회장과 박영돈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장, 이제윤 수석부회장, 국중진 노인대학장, 김미란 마을 이장, 김미숙 부녀회장, 주민 등 25명이 참석해 선정을 축하했다.

박영돈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장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앞장서 온 부동촌 경로당의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다른 경로당에도 건강한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 부동촌 경로당 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준 덕분에 모범경로당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며 넉넉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을 사랑방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동강대 4학년 배다인씨, 혈액원장상 수상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배다인씨가 꾸준한 헌혈 참여로 혈액원장 표창을 받았다.

배씨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혈액원과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간호봉사대장정 혈액원장 표창 수여식’에서 혈액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배씨는 이날까지 총 97회 헌혈을 기록했으며 평소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예비 간호사로서 지역사회 봉사에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3-6월 진행된 ‘간호봉사대장정’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 캠페인이다. /김재정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소멸위기지역 아동 디지털 교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달 30일 소멸위기지역 아동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초등학교에서 3개월간 디지털·인공지능(AI) 학습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용 노트북 10대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아동에게 디지털 및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특히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해 지역 홍보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스스로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영희 본부장은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구례남도사랑봉사단, 경로당 150곳 김치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2일 “최근 문척면 구성마을회관에서 구례군남도사랑봉사단이 어르신을 위한 백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남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회원 3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배추와 각종 재료를 손질해 담근 백김치를 경로당 150곳에 전달했다.

특히 봉사단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맛을 선사하기 위해 봄부터 담가둔 달래액기스를 활용, 백김치의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구례군남도사랑봉사단은 매년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어르신들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나눔을 실천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